TALK+

귀농 궁금증 '톡' 하세요

장성군, 톡플러스 시스템 가동…SNS로 맞춤 정보 제공

장성군이 SNS와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한 귀농·귀촌 정보 제공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상담과 현장 교육, 농지·주택 정보, 지역민 융화 지원 등을 제공하는 '귀농귀촌 톡플러스(talk⁺)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귀농·귀촌 실시간 상담'이 주목된다. 장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귀농·귀촌 상담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SNS나 온라인 상담이 어려운 예비 귀농·귀촌인은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방문설명회 신청, 귀농귀촌 컨설팅(찾아가는 황금나침반 사업)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현장교육을 원하는 귀농·귀촌인은 옐로우시티 귀농학교 농업기초반 수업과 농장에서 직접 일을 배우는 '인턴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 실시간 온라인 상담
- ☑ 현장 교육
- ☑ 농지·주택 정보
- ☑ 지역민 융화 지원

장성군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관심이 높은 농지와 주택 관련 정보도 맞춤으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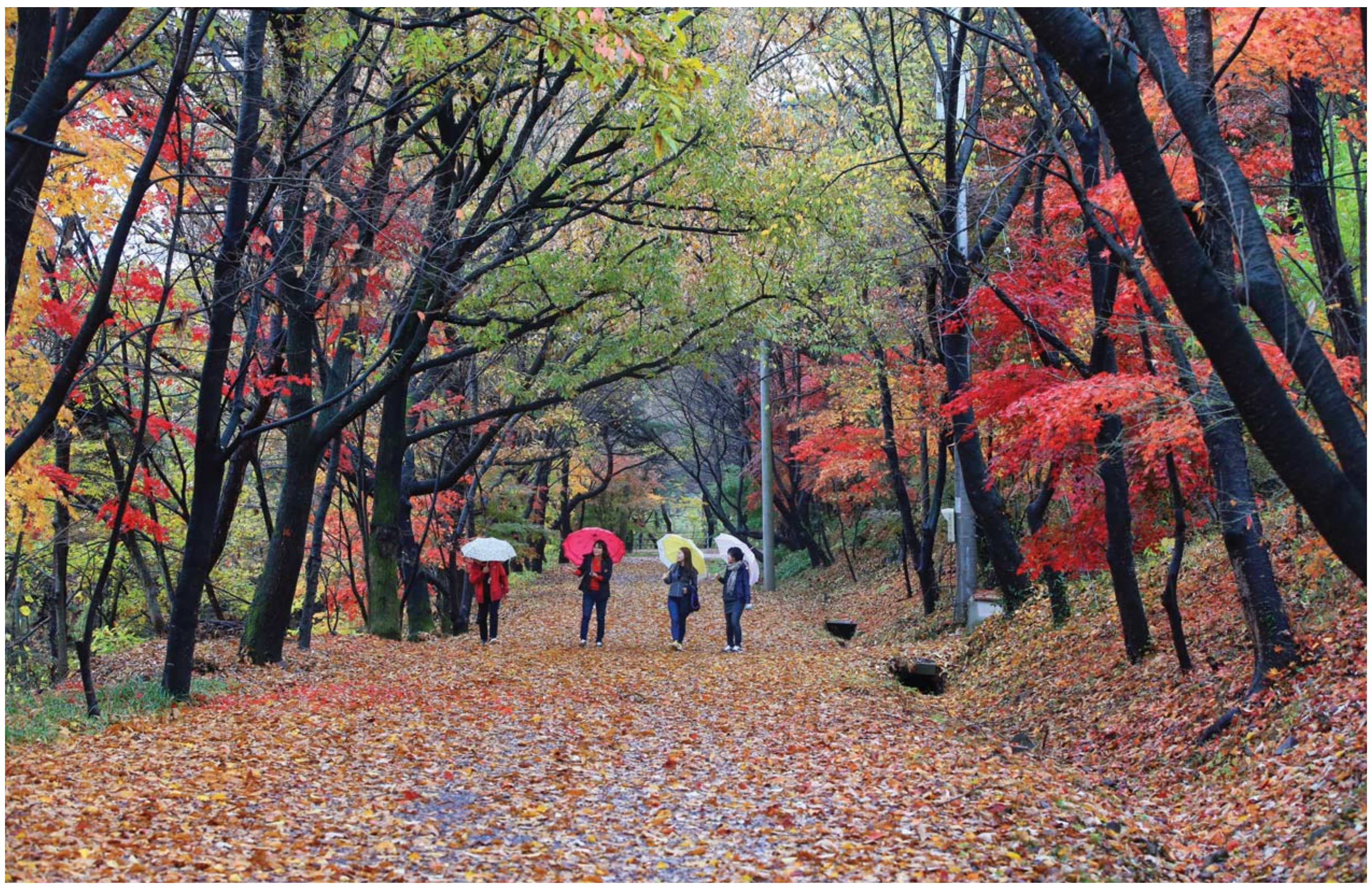
장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와 농업인상담소,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빈집과 농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 ▲귀농·귀촌인-원주민 간 갈등해결 방법 교육 ▲동아리 육성을 통한 재능기부활동 ▲지역 봉사활동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지역민과의 성공적인 융화를 지원한다.

'귀농귀촌 톡플러스(talk⁺)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 '장성군'을 검색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 너릿재 옛길 걷고 싶은 전남 대표 가을 숲길 선정



화순 너릿재 옛길이 전남도 '걷고 싶은 전남 숲길' 중 가을 대표 숲길로 선정됐다. 너릿재 옛길은 1970년대 초 너릿재 터널이 뚫리기 전까지 광주와 화순을 연결하는 작은 도로였다. 광주와 접근성이 좋고 대규모 구절초 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주변에는 울긋불긋 애기단풍이 숲과 어울려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하는 가을 대표 숲길로 유명하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보행 장애판정 못받아도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장흥군, 특별교통수단서비스 수급 기준 확대

장흥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등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게 했다고 3일 밝혔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높은 사람(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이다.

이에 따라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지난달 30일부터 가까운 읍·면을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단계적 개편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나주 이창지구 행복주택 조감도.

나주 이창지구 행복주택 본격 착공

150억 투입 150세대 공급…2022년 5월 준공

청년·저소득층·산단 근로자 등 주거안정 도모

내집 마련이 어려운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나주시 영산포 이창지구 행복주택이 첫 삽을 떴다.

나주시는 공공임대주택인 '이창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오는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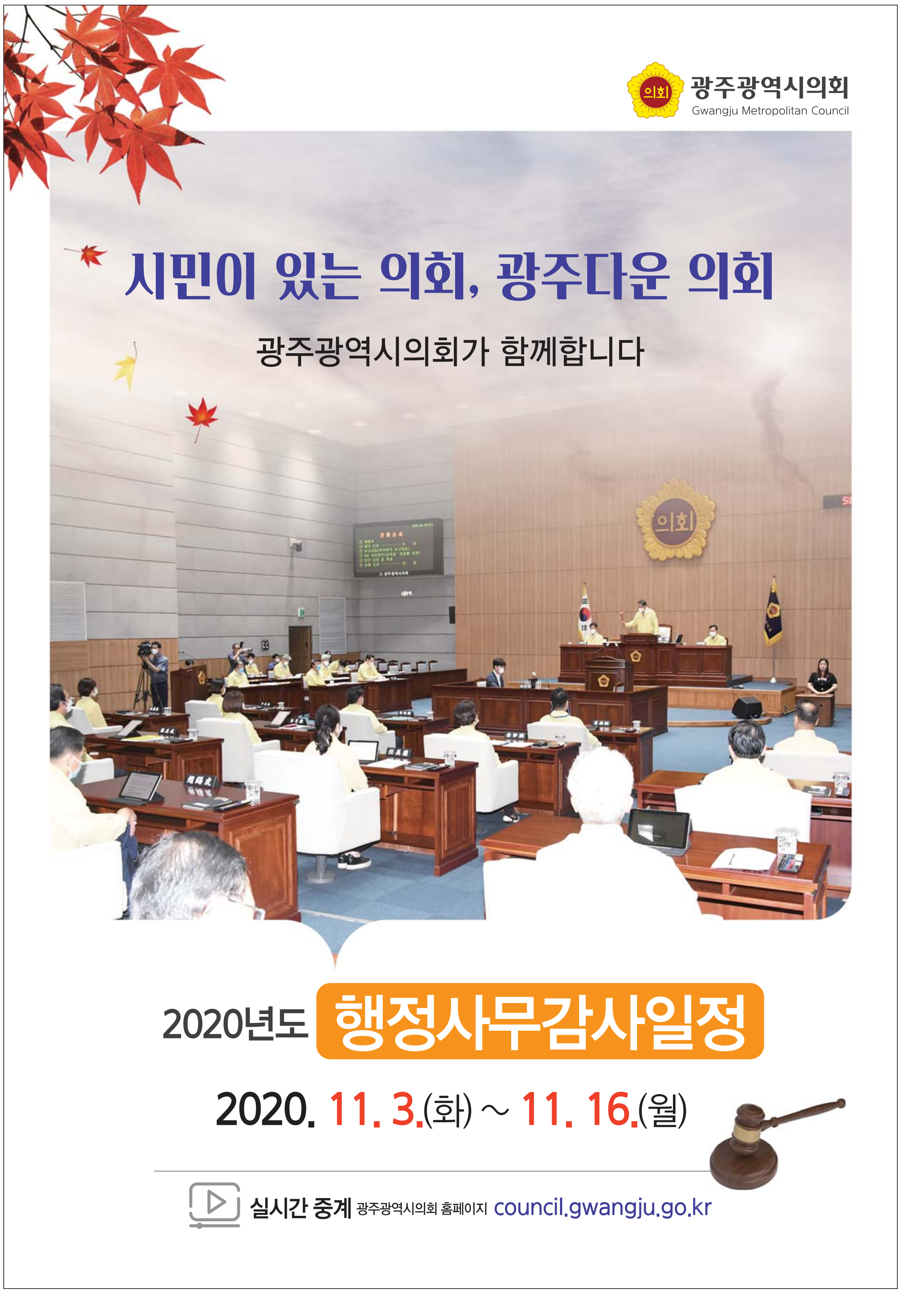
이창지구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에 따른 안정된 정착을 돕기 위한 민선 7기 역점시책으로 혁신·일반 산업단지 배후 지역에 건립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나주시는 지난 2018년 10월 공동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복주택사업 시행협약' 체결에 이어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 사업승인, 올해 4월 공사 발주와 시공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착공했다.

사업비 150억원(국비30%, 기금융자40%, LH 30%)이 투입되는 행복주택은 영산포 이창동 714-1번지 7199㎡(2178평)에 세대 당 전용면적 21~44㎡ 총 150세대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한다.

나주시는 앞서 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무상제공을 비롯해 주택부지 주변 환경 개선, 대중교통 체계 정비 등을 추진 중이다.

LH는 국비 및 기금, 자체 예산을 투입해 주택 시공과 운영·관리를 책임진다.

박봉순 나주부시장은 "이창지구 행복주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산단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침체된 영산포권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